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강원소년체육대회 환영만찬	1
강원도민일보	06면	도, 강특법 핵심특례 점검 "철저히 대비해야"	1
江原日報		‘압도적인 경기력’ 강원FC, 대구FC 3대0으로 완파하며 시...	2
강원도민일보	06면	늘봄학교 일일강사 나선 지사·교육감 "안착 노력"	3
강원도민일보	06면	의대증원 '2000명' 규모 바뀔까... 도내 대학 전전긍긍	4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대병원 의료진 대거 영입 필수의료 강화	4
江原日報	07면	강원 전통시장 '손님이 없다'	5
江原日報	12면	“강릉선 KTX 개통, 수도권 80분 빨라졌다”	6
강원도민일보	07면	'꽃망을 언제 터지나...' 개막 앞둔 경포벚꽃축제 노심초사	7
강원도민일보	15면	'홍천에서 살아보기' 8개월 여정 시작	7
江原日報	13면	청명·한식일 산불 특별대책본부 운영	8
江原日報	12면	양양군·체육단체 “도 장애인생활체전 성공 만전”	8
강원도민일보	08면	밀키트 인기 시들...매출 반토막에 폐업 속출	9
강원도민일보	16면	영월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스마트'	9
江原日報	16면	15사단 영외 신병수료식에 상권 ‘활짝’	10
江原日報	11면	원주 수출 규모 2년 연속 10억달러 돌파	11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시 '1인가구 안부 살핍 서비스' 도입	12
강원도민일보	14면	태백 잇단 스포츠 대회 지역경기 '봄바람'	12
江原日報	14면	“녹색 지구 태백시민이 함께 만듭니다”	13
江原日報	15면	영월군 민간위탁사무 연 1회 점검	13
강원도민일보	17면	화천군 농촌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호응'	14
江原日報	15면	정선 산사태 취약지 사방댐 6곳 신설	15
江原日報	06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원도 사과 주산지로 육성"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향호 국가정원' 밑그림이 중요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삶과 미래' 걸린 총선에 참여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폐광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 특수성 반영돼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물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 굶아 터지고 있는 민...	19

江原日報

2024 04 04 ()

21



강원소년체육대회 환영만찬 2024강원소년체육대회 환영만찬이 3일 강릉 씨마크 호텔에서 신경호 도교육감, 권혁열 도의장, 양희구 도체육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강릉시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06

도, 강특법 핵심특례 점검 “철저히 대비해야”

김진태 지사 준비 당부

강원특별자치도가 3일 강원특별법 핵심특례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은 도민들의 한(恨)을 푸는 것으로, (특례)운영을 잘못하면 갈등만 생겨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도는 이날 김진태 지사와 김명선·정광열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미활용 군용지 활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 27개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보고회를 갖고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특별법은 오는 6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2차 개정안의 특례를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모

든 걸 다 걸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는 국방부로부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자료를 받아 오는 7월 미활용 군용지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법 시행월인 6월, 고성통일전망대 인근을 최초 지정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초 지정은 10월로 잡고 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도 조례안을 지난 2월 가결했다. 김덕형

2024 04 03 ()

江原日報

‘압도적인 경기력’ 강원FC, 대구FC 3대0으로 완파하며 시즌 첫 승



3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와 대구FC의 경기에서 전반 14분 윤석영이 선제 골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강원FC 제공.

강원FC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시즌 첫 승에 성공했다.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3일 오후 7시30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5라운드 대구FC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다. 강원은 개막 5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하며 1승 3무 1패, 승점 6점을 기록했다.

구단주인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이강균 춘천시체육회장 등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박성현의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박성현은 강원 이기혁의 사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이상헌과 야고 카리엘로가 투톱에 섰고, 양민혁과 웰링턴이 좌우 측면에 배치됐다. 중원은 한국영과 김이석으로 구성됐고, 포백은 윤석영, 이기혁, 강투지, 황문기가 형성했다. 박창효 골키퍼가 선발로 나섰다.

후반 추가시간 강원이 승리를 확정 짓는 득점을 넣었다. 이번에도 주인공은 이상헌이었다. 유인수가 찰라준 공을 침착하게 칩샷으로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골망을 흔들었다. 리그 5호 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이후 강원은 큰 위기 없이 3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06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도교육감은 3일 늘봄학교 참여 학교인 춘천 퇴계초등학교를 방문, 일일강사로 나섰다.

늘봄학교 일일강사 나선 지사·교육감 “안착 노력”

강원형 늘봄학교 전국 우수사례 소개
춘천 퇴계초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김진태 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이 3일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된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 현장을 찾았다. 늘봄학교는 이번 1학기부터 시행된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결합한 게 핵심이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보조강사로 활용해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늘

봄학교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김 지사와 신 교육감은 늘봄학교 참여 학교인 춘천 퇴계초등학교에서 일일 늘봄강사로 나섰다. 김 지사는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돕고, 신경호 교육감은 놀이수학을 진행했다. 이들은 늘봄학교의 보조강사와 행정업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어르신과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강원형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5개 시·군(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의 6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어르

신 인력 지원은 현재 222명에서 올해 연말 600여 명으로 확대된다.

김 지사는 “강원형 늘봄학교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경감, 교사 업무 부담 등 1거5득의 효과를 가진 정책”이라고 했다. 신 교육감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늘봄학교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느꼈다”며 “강원형 늘봄교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안착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06

의대증원 '2000명' 규모 바뀔까... 도내 대학 전전긍긍

이달까지 입시계획 변경안 제출
대학별 신입생 정원 축소 등 우려
조정 가능성에 충선용 정책 비판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못
박아 오던 정부가 증원 규모 조정 가능
성을 시사하면서 이달 말까지 2025학
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해야 하는 강원
도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일 본지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로부

터 내년도 의대 입학생 증원 인원을 배
분받은 강원도내 대학 4곳은 모집인원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
형시행계획 변경안'을 오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
해야 한다. 이번 증원으로 확보한 도내
의대 신입생 정원은 강원대가 132명이
며, 가톨릭관동대·연세대 원주의대·
한림대는 각 100명이다.

대학들은 대교협이 발표한 대입전
형기본사항에 따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지

원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입력하는 절
차를 진행한다. 이후 대교협 대입전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 대학은 다음달
중으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지난달이 돼서야 증원 규모가 확정
되면서 각 대학은 이에 맞춰 대입 계획
을 수정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갑작스럽게 증원 구
모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차 변
수가 생겼다. 이때문에 도내 대학들은
언어낸 의대 증원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강원대 관계자는 "지금 계획을 세워
도 다시 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 교육부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4월 말까지는 대교협에
대입 전형안을 제출해야 해 고민이 많
다"고 전했다.

당초 2000명 규모에서 타협은 없
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조정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내자 처음부터 의대 증원이
'충선용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
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건대학

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반응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반발
한 학생·교수들의 단체행동으로 대학
과 병원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처음부
터 정부가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8일까지 각 대학에
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내년도 대학
별 교수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
임 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06

강원대병원 의료진 대거 영입 필수의료 강화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 10명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남우동)은 지
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신규 의료진 10명을 영입해 진료
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원대병원에서 새롭게 진료를 시작
한 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
과, 산부인과, 외과, 안과, 정신건강의
학과 등 총 10명이다.

특히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 서비스
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임영내 소아응
급전담 전문의, 박양희 소아병동전담
전문의, 장희진·한혜서 신생아중환자
실전담 전문의, 박양 소아청소년 알레

르기 호흡기 담당 교수 등 총 5명의 소
아청소년과 분야 의료진을 대거 영입
했다. 이외에도 서정국 응급의학과 전
문의, 백민현 부인암 담당 산부인과 교
수, 이광진 혈관외과 담당 교수, 정영훈
망막 질환 담당 안과 교수, 이해우 정신
건강의학과 교수를 초빙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도내 필수의료 서비
스를 강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의료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소아
청소년과 분야의 의료진을 많이 영입
한 만큼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했다.

김정호

2024 04 04 ()

07

江原日報

강원 전통시장 ‘손님이 없다’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체감경기지수 1.5P 내린 40.8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
작년 12월부터 네달째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며 강원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3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1.5포인트 내린 40.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40.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1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지수(BSI)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2,400명, 전통시장 상인 1,300명을 대상으로 매출, 자금사정, 구매고객 수 등을 조사해 집계한 결과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그보다 높으면 체감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고, 낮으면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도내 상인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46%)이 이어지며 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15.5%), 유동인구 감소(14.2%) 등이 체감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실제 이날 춘천 중앙시장에서 만난 청과상인 이모(65)씨는 “도매로 떼온 물건이 빨리 팔리지 않아 무르

고 상해버리는 일이 많아졌다”며 “시장 상품은 농산물 위주인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 상대적으로 할인행사가 많은 대형마트 쪽으로 손님이 몰리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다만 도내 전통시장 4월 전망BSI는 전월 대비 4.67포인트 오른 61.5를 기록, 이번 달 경기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인들은 따뜻한 날씨와 봄꽃 개화로 유동인구가 늘며 경영상황 또한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춘천 중앙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61)씨는 “날씨가 좋아지면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늘고, 나온 김에 시장도 들러 물건도 사고 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4 04 ()

12

“강릉선 KTX 개통, 수도권 80분 빨라졌다”

국토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강릉역 주변 상권도 활성화

【강릉】강릉선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강릉역 인근의 유동인구가 급증,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높다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17년 강릉선 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강원지역 접근성이 1.4시간 개선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0.7시간

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토연구원은 강원도는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고속철도망이 공급돼 접근성을 개선시킨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또 도심 안에 위치한 강릉역은 비슷한 인구 규모지만 도심 밖에 역사를 조성한 충남 공주역보다 역세권 유동인구가 약 205배 많았고, 이를 통해 시가지 확산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2022년 기준 연 257만명이 이용하며 역사 주변 지가 상승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은 고속철도 개

통으로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기존 고속철도망과 지역개발계획 간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은 지역 간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활력 요소가 됐다”며 적절한 인프라 공급과 지역개발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릉선 고속철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12월 개통됐으며,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류호준기자

2024 04 04 ()

강원도민일보

07

‘꽃망울 언제 터지나...’ 개막 앞둔 경포벚꽃축제 노심초사

강릉 개화 늦어 5일로 개막 연기
감성조명·행사부스 설치 막바지
시, 운동회·버스킹 등 행사 마련

영동지역 최대 인기를 끄는 벚꽃 축제인 ‘경포벚꽃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벚꽃이 개화하지 않으면서 도심 축제에 이어 또 다시 꽃 없는 축제 개최가 우려되고 있다.

3일 벚꽃축제가 개최될 경포호수 벚나무들은 조명으로 꾸며지고, 주 행사장인 경포습지광장은 행사 부스가 설치되는 등 축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그러나 축제의 핵심인 벚꽃나무대다수에 아직 꽃망울이 터지지 않은데



경포벚꽃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 축제가 열릴 경포호수의 벚나무들이 꽃망울을 터트리지 못하고 있다.

다 봄비까지 내리고 있어 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민들 역시 도심 벚꽃축제에 이어 경포벚꽃축제마저 핵심인 벚꽃이 개화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도심 축제가 꽃없이 너무 아쉽게 끝나 경포축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꽃이 피지 않아 애가 탄다”며 “벚꽃축제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을텐데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해당 축제는 꽃샘추위 등으로 벚꽃개화가 늦어질 것을 예상해 기존 29일부터 4월 5일로 일주일 가량 축제 개막을 연기했다.

시는 벚꽃 개화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축제를 진행한다

는 방침이다. 경포생태저류지 둘레길을 비롯해 경포사거리~홍창암까지 벚꽃야간 조명등을 설치하고, 주행사장인 경포습지광장에 피크닉존 운영,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 벚꽃운동회, 벚꽃버스킹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축제기간 동안 많은 인파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정체 구간에 교통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임시화장실을 운영해 관람객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막당일만 가는 힘들겠지만 최소 주말에는 경포초입부터 점차 꽃망울 터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제가 끝난 후에도 벚꽃이 질때까지 감성조명 설치를 유지할 계획이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재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15

‘홍천에서 살아보기’ 8개월 여정 시작

11세대 14명 참가자 입고
11월까지 귀농·귀촌 체험
도시민 성공적 정착 유도

“전국유일 귀농귀촌특구 ‘홍천’의 사계절을 체험해보세요.”

인구소멸위기속다양한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는 홍천군이 ‘홍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8개월간 운영한다.

‘홍천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홍천에서 살아보며 지역의 자연, 문화, 다양한 영농 체험 등을 통해 장기간 체



홍천에서 살아보기 입교식이 3일 공작산권역센터에서 개최됐다.

류하며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올해 11세대 14명의 참가자가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숙박, 연수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제공받으며, 매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10만원의 연수비도 받게 된다. 이

번 프로그램 운영 마을은 지난 2022~2023년 홍천스테이(STAY) 사업을 진행해 오며 도시민의 지역 정착을 도운 공작산권역센터이다.

군은 이를 통해 도시민이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 인

구소멸위기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전국 유일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로 지정된 홍천군은 장기체류 교육과정, 새내기 귀농인 지원 등 귀농귀촌 유지 활성화로 매년 2500명 정도의 귀농귀촌인이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문명선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홍천의 매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민의 농업·농촌 이해를 돕고, 주민들과 어울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현

2024 04 04 ()

江原日報

13

청명·한식일 산불 특별대책본부 운영

속초시 7일까지 대응태세 돌입
묘지 등 감시요원 집중배치
공원녹지과 전 직원 순찰도

【속초】속초시는 4일부터 7일까지 봄철 산불 최대 취약시기에 대비해 특별대책본부를 꾸리고 순찰 인력을 배치하며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은 불법소각행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성묘, 등산 및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입산객이 늘어나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청명·한식일 특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산림인접 집단묘지 등에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이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진화대를 전진 배치한다. 특히 6~7일 시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근무를 시행하고, 각동 자율방범대를 투입해 산불감시인력을 증원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 산림재난통합관리체계 시스템의 실시간 정보를 속초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연동해 감시원 및 진

화대의 위치정보, 순찰정보를 3차원 지도에서 확인해 인력배치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또 산불예방 행정모델을 활용해 산불 발생 시 예상 확산경로를 반영한 산불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병선 시장은 “4월은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건조한 기후 및 영농철 불법소각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만큼 불법소각 행위 금지 및 성묘나 등산 시 산불안전수칙 준수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2024 04 04 ()

江原日報

12

양양군·체육단체 “도 장애인생활체육전 성공 만전”

1차 시·군 대표자회의

【양양】제17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1차 시·군 대표자회의가 3일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양양군체육회 및 시·군체육회, 종목별 단체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단

체별 대회 준비 상황보고와 대회 및 종목별 참가 관련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 1차 회의를 토대로 유관기관·종목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기진행과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대회 경기종목인 게이트볼, 농구, 당구 등 16개 종목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장 시설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한다

는 방침이다.

제17회 도장애인생활체육전은 6월10~12일 양양종합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선수단·임원 등 1,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 “도내 장애인분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생활체육이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08

밀키트 인기 시들...매출 반토막에 폐업 속출

엔데믹·고물가 가격 상승 영향
외식 대안 매력 똑 판매량 감소
간편식 대체·문 닫는 점포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유통과 집밥·혼밥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행했던 밀키트 시장이 엔데믹 이후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삽시간에 인기가 식고 있다.

3일 춘천 강원대 인근의 밀키트 매장에는 냉장고에 가득했던 밀키트 대신 간편 식품이 들어섰다. 점장 정모(46)씨는 2020년 밀키트 종류가 10종류였다면 현재는 2~3개로 줄었다고 했

다. 정씨는 “최근 물건의 70~80%를 간편식으로 교체했다. 요즘은 밀키트 인기가 시들해지고 간편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보면 지난해 전국 밀키트 매장은 662곳으로 강원 지역은 32곳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체별로 강원의 점포수는 전국 9위로 집계됐고 서울(33곳)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내 지자체 별로 춘천 9곳, 원주 11곳, 강릉 7곳, 속초 4곳, 화천 5곳 등에 달했다. 도청 관계자는 “엔데믹 시점부터 폐업하는 밀키트 점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밀키트 부진의

이유로 엔데믹과 고물가를 꼽았다.

코로나 시기 외식 대안으로 밀키트의 인기가 높았지만 엔데믹 이후 외식업장이용이 자유로워 소비가 줄었고,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직접 요리를 하는 소비자가 늘어 판매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춘천의 또다른 프랜차이즈 밀키트업체 직원인 조모(28)씨는 “코로나 시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며 “외식이 가능해지면서 밀키트가 한물갔다. 인기 제품 10종류를 제외하고 발주를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로 인해 밀키트 제품 가격이 상승한 것도 판매부진에 원인이 됐다. 이날 도내 대형마트 및 무인매장

에서 판매하는 밀키트(부대찌개·2인분) 가격은 최대 2만원에 달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15~20% 가격 인상이 있었다고 했다. 밀키트 유통업체도 한식 특성상 채소가 많이 필요해 최근 고물가가 지속으로 가성비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짜개류의 경우 가격의 90% 이상이 야채에 사용되는 제품도 있어 가성비 제품은 현실적으로 어렵는데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PB)와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며 “당분간은 인기 제품을 제외하고는 냉동 간편식 위주로 판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jeongh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16

영월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스마트’

한반도농협 APC 10월 착공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납품
조합원 건강검진 확대 호평도

영월 한반도농협(조합장 신승문)의 전국 최초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오는 10월 착공된다.

국비 등 총사업비 45억여원이 투입돼 내년 6월 주천면 신일리 122의 2번지 일원에서 건축면적 2431㎡ 규모로 완공되는 APC는 80여농가 최대 5000t의 토마토와 30농가 2000t의 오이 선별과 소포장 및 저온저장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이마트와 홈플러스·롯데



영월 한반도농협이 올해부터 조합원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해 호평받고 있다.

데마트·농산물은 온라인도매시장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할 예정이다.

또 농협은 최근 조합원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해 서울 GC녹십자아이메드에서 작수년도에 출생한 조합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셔틀버스 운행

과 점심 등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함께 건강검진을 실시해 고령 조합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법인세자감전 당기순이익 22억8000만원과 하나로마트 매출액 152억원 달성으로 총 17억

8500만원의 현금을 배당했다.

신승문 조합장은 “각종 자동화 장비가 구축되는 스마트APC는 지역 농산물 생산과 선별·포장·유통의 데이터화로 농산물이력 추적 가능성이 가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참여 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들의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월군과 농협은 지난해 초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화와 광역화를 위한 APC 구축 공모사업을 진행해왔다.

방기준

江原日報

2024 04 04 ()

16



◇3일 사내복합체육관에서 열린 영외 신병 수료식을 마친 신병들과 가족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사내면 상가로 가고 있다. 화천=장기영기자

15사단 영외 신병수료식에 상권 ‘활짝’

사내복합체육관서 진행
1,000여명 음식점 등 이용

【화천】화천 15사단이 신병 수료식을 영외에서 진행, 사내면 상경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5사단 승리부대는 3일 신병 수료식을 부대 밖에 있는 사내복합체육관에서 개최하자 전국에서 몰려온 부모와 형제 등 1,000여명의 가족들로 하루 종일 상가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수료식이 끝난 신병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내면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 펜션을 찾은 등 오후 6시30분까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부

대로 복귀했다.

화천군도 수료식이 열린 복합체육관 앞에 사내면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업소와 펜션·숙박업소를 소개하는 배너를 설치해 도움을 주었다.

오영민 사단 인사참모는 “영외 수료식 이외에도 매월 15사단을 뜻하는 15일과 27사단을 뜻하는 27일에 ‘통통데이’ 행사를 갖는 등 지역과 상생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군수는 “장병들이 화천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수 있도록 장병과 군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江原日報

2024 04 04 ()

11

원주 수출 규모 2년 연속 10억달러 돌파

지난해 실적 10억910만달러 전년도 比 1.6% 증가
무역수지 역대 최대 규모 흑자... 시 “수출 성장세 기대”

【원주】원주시 수출 규모가 2년 연속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실적은 10억910만달러로, 전년도 실적(10억370만 달러)에 비해 1.6% 증가했다. 전반적인 수출 침체 속에서의 값진 결실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수출의 40.2%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 기간 수입은 5억208만달러에서 4억2,208만달러로 15.0% 줄면서 무역수지는 6억6,913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의료기기 수출이 약진을 거듭했다. 의료기기 수출은 1억800만달러에서 1억2,800만달러로 상승했다. 기타 품목에 포함된 의료기기 품목을 합산하면 3억달러에 육박한다.

면류 제품은 향토기업인 삼

양식품 원주공장의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면서 같은 기간 2억2,900만달러에서 2억5,500만달러로 꺾충 뛰었다.

전통적으로 원주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부품은 글로벌 시장 침체로 2억7,400만달러에서 2억4,200만달러로 역신장했다. 다만 올 들어 경기 회복 시

그날이 감지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시는 이 같은 실적을 감안해 2026년까지 수출 15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설정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의료기기의 수출 시장 다변화 등 호재를 감안한 것이다.

원강수 시장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강원의료기기전시회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바이어가 찾을 예정인 만큼, 전 업종에서의 고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10

춘천시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도입

시·한전·SK텔레콤 업무협약

춘천시가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춘천시는 4일 오후 시청에서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과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공동 업무협약을 맺는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전력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분석해 1인가구의 안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등에게 문자로 알려줘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공지능 프로

그램이다. 전력 사용량과 문자, 통화, 데이터 사용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감소하면 곧바로 문자 등 알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춘천 내 1인가구 비중 증가에 따른 선

인 가구 수는 5만 7298가구다. 이는 춘천 전체 가구수인 13만 5440가구의 42.3%에 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춘천시는 홀몸노인과 은둔 청년 등 1인 취약계층 100가구에 무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오세현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14

태백 잇단 스포츠 대회 지역경기 '봄바람'

이달 전국 태권도 선수권 등 7개

스포츠 메가 태백에서 스포츠 대회가 줄지어 펼쳐지면서 본격 관광철을 맞아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탄력이 기대된다. 이달에만 7개 전국·도·시단 위 체육대회가 열린다.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는 지난 2일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고원체육관에서 펼쳐진다.

6일까지는 중등부 겨루기 경기가, 7일부터 10일까지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품새 경기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2800여명과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 3500여명이 대거 참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대학부 13개팀, 300여명이 참가하

는 전국 대학 핸드볼 통합리그 대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고원체육관에서 열린다.

태백스피드웨이에서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태백시장배 스피드 페스티벌 1차전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태백 트랙페스티벌 1차전이 개최된다. 향후 스피드 페스티벌은 4회, 트랙 페스티벌은 5회 추가 열린다.

시 단위 대회의 경우 제27회 태백시협회장기 테니스대회가 6일부터 7일까지 태백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고원1구장에서는 제15회 태백시협회장배 T리그 축구대회가 6일 개막해 10월 27일까지, 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는 태백시사회인야구리그가 7일 개막해 11월 3일까지 각각 열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 및 도단 위 56개 대회 개최가 확정됐고, 추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2개 대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라며 "스포츠 선수는 지역경제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열

2024 04 04 ()

江原日報

14

“녹색 지구 태백시민이 함께 만듭니다”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어린 묘목을 키우기 위한 작은 정성과 실천으로 소중한 큰 산림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태백시와 태백국유림관리소,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강원일보사가 식목일을 맞아 산림 복원과 녹지 조성의 중요성 및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공동 주최하는 희망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5일 오전 10시 태백종합경기장 야

내일 종합경기장서 진행
1인당 5그루 선착순 제공

외육상트랙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유실수(대추나무 외 5종), 특용수(음나무 외 1종), 화목류(때죽나무 외 2종), 다육식물 등 총 12종 약 7,500그루가 1인당 5그루씩 선착순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

강원일보사는 2015년 창간 70주년 기념 특별기획 ‘강원을 푸르게, 더 푸르게’

프로젝트를 계기로 태백시 등과 공동으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태백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공동 개최해 왔다.

이상호 시장은 “어린 묘목이 풍성한 산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잘 지키도록 하겠다. 이날 행사가 많은 시민에게 소중한 산림자원 조성에 일조하고 산불 예방과 자연보호에 적극 나서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백=김광희기자 kwh635@

江原日報

2024 04 04 ()

15

영월군 민간위탁사무 연 1회 점검

관리 감독 부실 지적에 정가지도 등 새 지침 수립
현황·회계·자료 등 전산화 ...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영월】속보=영월군이 민간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11일자 15면 보도)과 관련해 정기 지도 점검 실시 등 새로운 관리 지침을 수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설별 관리 카드를 작성,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감사팀을 활용,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각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을 위한 민간 위탁 관리 프로그램도 갖춘다. 민간 위탁 계약

현황과 지도 점검 유무, 회계 결산 및 감사 자료 등도 전산화 할 방침이다.

영월군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동 숲 마을에 매월 100만~200만원을 운영 자금으로 지출하고 평균 감사실시율이 5.88%에 그치는 등 각종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영화 군의원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자료를 입력해 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위탁시설물의 회계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 재산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리 지침이 마련되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오윤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17

화천군 농촌여성 자격증 취득 지원 ‘호응’

한식·제과·제빵 기능사반 등 운영

화천군은전문자격증취득과정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오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센터내 농업인 창업교육센터에서 ‘한식 조리 기능사반 교육’을 진행한다. 또 오는 23일부터 7월 1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과·제빵 기능사반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한식 조리 기능사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취득시험에 대비한 이론과 실기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공중보건학, 식품학, 조리과학, 원가계산, 위생학, 식품위생법 등의 이론과 실습, 전문가강의, 평가순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제과·제빵 기능사반은 기초 이론과 40여종에 이르는 메뉴 실습과정으로 운영한다.

군은 지난 1997년 한식 조리 기능사 과정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양식 조리 기능사와 제과·제빵 기능사반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에는 중식 조리 기능사를, 2015년에는 바리스타반, 2016년에는 퓨전 떡 요리 제조사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군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교육은 특히 농촌의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금까지 센터에서 진행한 자격증반을 통해 한식 조리 기능사 219명과 양식 조리 기능사 55명, 제과·제빵 기능사 45명, 중식 조리 기능사 7명, 바리스타 19명, 퓨전 떡 요리 제조사 15명 등 모두 3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중 일부는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음식점과 학교 등 단체 급식소 등에 취업해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과 재취업의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안익호

2024 04 04 ()

江原日報

15

정선 산사태 취약지 사방댐 6곳 신설

군, 산지 사방사업 및 기존댐 6개소 정밀 점검 실시
5월 산사태 방지 대책 본부 설치 각종 시설물 점검 관리

【정선】정선군이 여름철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5억원을 투자해 정선읍 용탄리를 비롯한 남면 유평리와 광덕리, 임계면 도전리와 덕암리 등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6개소를 신설한다.

또 정선읍 봉양리 산 22-6번지에 1억300만원을 들여 1ha 규모의 산지 사방사업과 기존 사방댐 6개소에 대한 외관 및 정밀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선지역 전체 면적의 86%가 산림으로 이뤄진 만큼 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산지의 붕괴나 토석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실

우려지에 대한 복구와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5월까지 사북읍 사북리를 비롯한 산사태 우려지 9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실시하고, 위험지역은 지정·고시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수가 증가하는 5월부터 산사태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 10월까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석기자

2024 04 04 ()

江原日報

0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원도 사과 주산지로 육성”

춘천 위치 스마트과수원 방문
‘강원사과’ 육성계획 등 점검

2030년까지 재배단지 2천ha
스마트과수원 880ha 확대 계획

속보=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춘천의 스마트과수원을 찾아 ‘강원사과’의 생산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2시에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위치한 강원도의 스마트과수원을 방문, ‘강원사과’ 육성계획을 보고받고 스마트과수원 실증단지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본보 3일자 6면 보도)을 위해 미래 사과 재배 적지로 평가받는 강원도의 스마트과수원 지원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한 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춘천 동내면 스마트과수원 실증단지를 방문해 사과재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박승선기자

과 재배적지 복상으로 도내 사과 재배면적은 2005년 144ha에서 지난해 기준 1,679ha까지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30년까지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양구 등 5대 핵심 주

산단지에 총 2,000ha의 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강원사과’ 육성계획을 마련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과수원은 노동력을 절감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으로 추진된다. 도는 스

마트 과수원을 해마다 70ha씩 조성, 2030년에는 880ha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과수원은 강원형 사과 재배 방식인 ‘다축형 평면수형’ 기술이 접목된 과수원이다. 기존의 주요 사과 재배 모델인 ‘2축형’이나 ‘구똥

형(Guyot)’보다 생산성이 월등히 높고 노동력을 절반 이상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해님 도농업기술원 연구사는 “스마트과수원은 햇빛 투과량이 높고 통풍이 원활해 병해충 예방에 탁월하다”며 “스마트 기기를 통한 약제나 물 주기 작업도 가능해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강원도를 신규 사과 산지로 집중 육성하고 ‘강원사과’를 브랜드화시켜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등을 통해 ‘강원사과’ 유통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스마트과수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강원도가 사과 주산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과수원 시설 점검을 마친 뒤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MS마트를 방문, 지역 중소마트의 채소·과일 가격도 챙겼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 19

'향호 국가정원' 밑그림이 중요

-바다와 호수 어울린 관광 명소로 조성해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릉 향호가 호수정원으로 개발됩니다. 이곳은 주문진 해수욕장과 어시장, BTS 앨범과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등 명소와 연결돼 관광자원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다와 호수를 연결하는 여행 벨트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문에 호수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지 기본 구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변 관광과는 차별화한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휴식과 놀이가 공존하는 국민 휴식지가 되어야 합니다. 용역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명품 휴양지로 변신하기를 기대합니다.

강릉시는 최근 주문진 향호 국가·지방 정원 조성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에는 4개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낙찰돼, 이달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합니다. 시와 용역사는 지방정원과 함께 국가정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짜며, 이와 병행해 일부 공사를 추진합니다.

향호 지방정원은 총 사업비 189억 원을 들여 주문진읍 향호리 일대 72만㎡를 우선 지방정원화한 뒤, 점차 부지를 104만㎡까지 늘려 국가정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30억원

을 들여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단계적으로 도로와 토양 개량 등 기반 사업을 합니다. 또 부지 내 조경 등을 위해 소나무 190그루를 사유지와 국유지에 이식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향호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 특성을 가진 호수입니다. 향호(香湖)라는 지명은 고려 충선왕 때 동해사면을 흐르는 계곡의 하류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향나무를 묻는 매향 풍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면서 잉어·붕어·뱀장어·송어·장어·빙어·가물치 등이 서식하며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길이는 750m, 폭은 500m이며, 면적은 약 8.0㎢에 이릅니다.

사업 성공의 관건은 전체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주차 면적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호수와 바다의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먹고 즐길 수 있는 상업 시설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잡다한 조형물을 이곳저곳에 설치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용을 더 들이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안목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공원을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04 ()

/ 19

‘삶과 미래’ 걸린 총선에 참여를

-5·6일 사전투표 유권자 한표 한표 소중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 한명 한명의 주권 행사를 통해 사회의 향방을 주체적으로 결정짓는 날입니다. 앞서 진행된 재외투표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를 편리하게 하는 장점으로 인해 그동안 투표율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유권자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지역구 254석은 물론 46석이 배정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거대 여·야 정당은 물론 여러 정당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투표율이 낮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내 및 전국적으로 ‘투표하겠다’라는 적극 투표자는 10명 중 8명 꼴이라는 여러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유권자 단체를 비롯해 정당과 후보측에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중이어서 역대 투표율을 기록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0%대 정도는 투표에 능동적인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상대적으로 30세 미만

유권자에서 투표 의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정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로 사익과 특정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실한 활동 및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유권자의 매서운 눈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는 투표 결과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정당 정치권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이므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부정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 향응 수수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이 돼야 합니다. 강원도선관위는 4월 1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모 후보자 및 현직 기초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홍천군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로 복지시설원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측의 엄정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는 선거 혼탁을 예방하는 필수요건입니다. 후보자 역시 정당당당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 선택을 받도록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 04 04 ()

/ 19

폐광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지역 특수성 반영돼야

폐광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폐광지는 수십년간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음에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는 고작 1년간의 고용 변화를 지표로 삼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올 6월 폐광을 앞둔 태백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문제는 태백의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7.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년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가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지정 가능한데 태백의 감소율은 3.62%로 기준에 못 미친다. 1년간 피보

험자 증감률, 3년 전 대비 피보험자 증가 등도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내년 6월 폐광하는 삼척 역시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과 삼척지역은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특히 태백시는 석탄산업합

리화 정책에 따라 1995년까지 42개 탄광이 폐광됐다. 이러한 급격한 폐광은 11만5,000명의 인구가 2023년 5월 기준 3만8,000여명으로 떨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주민들의 투쟁의 결실로 얻어낸 ‘폐광지역 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강원랜드가 설립됐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성공에 그치고 있고 대체산업 조성 부재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일도양단식의 1년간 고용 변화 지표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면 폐광지 주민의 생활을 더

없이 어렵게 만든다. 이런 기준은 주민의 기본권과 역사적인 국가발전의 기여를 무시하는 처사다. 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 등 4가지 기준
태백·삼척 충족 못 해… 고용지표 불합리”
정성 평가로 국가균형발전 차원 접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규모 고용조정 발생 시’ 정성 평가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속적인 에너지 조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폐광지역의 현 실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과 그간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폐광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정부 중심의 대체산업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폐광은 시간적인 문제와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가균형발전과 폐광 이후 주민들의 정주기반 마련 등 지역환경 개선 문제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江原日報

2024 04 04 ()

/ 19

물가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 끓아 터지고 있는 민생

도내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4년 3월 강원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1(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올랐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3%대를 웃돌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2%대로 다소 둔화됐지만 2월과 3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신선식품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7% 치솟아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0년 1월 이후 사상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다. 신선과실은 무려 39.0% 폭등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률이다. 신선식품과 신선과실은 모두 올 2월 역대 최고 상승률을 다시 뛰어넘었다. 장보기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는 4월 이후 물가가 다시 2%대로 진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제유가가 다시 들쭉이고 있다. JP모건은 러시아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가 감산을 이어가면 올 9월 브렌트유가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달러도 위험 요인이다. 미국의 경기 확장이 계속되며 6월 금리 인

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도 오름세다. 환율이 인상되면(원화가치 하락) 수입 물가도 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 때문에 미뤄둔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게 뻔하다. 여야가 쏟아낸 각종 총선 공약도 물가 관리에 돌출한 강력한 약재다. 공약대로 돈줄을 풀면 물가의 고삐를 죄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를 무겁게 짓눌러 온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지고 일상의 부담과 어려움은 커진다. 경제에도 부정적이다. 소비 심리 위축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고물가는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전환에도 걸림돌이다. 경기 침체 속 고금리·고물가의 동거가 길어질 수 있다. 국제유가나 환율 등 외 부적 변수는 어쩔 수 없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공약 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야 수출 호조로 살아난 온기로 서민 고통을 줄이고 소비 심리와 경기 회복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플레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